



안녕하세요? 이선애 요세피나 수녀입니다. 제 고향은 전라남도 담양, 대나무로 유명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농부인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언니 둘, 그리고 오빠와 함께 행복한 어린시절을 보냈는데 특별히 할머니와 함께 했던 소중한 추억이 많습니다.

가톨릭 학교인 살레시오 여고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1학년때의 담임 선생님이 수녀님이셨습니다. 학교에서는 셀 모임과 피정, 봉사활동 등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섬, 소록도

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 나환우들과 함께 하시는 수녀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 성소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성소의 꿈을 이어갔고 맹인 선교회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랑의 씨튼 수녀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살레시오 수녀회와 성경 공부를 지도하시던 수녀님의 초대로 까리따스 수녀회의 성소 피정도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수녀회 성소피정을 처음 왔을 때 수녀님들의 환대와 따뜻함 그리고 편안함을 느끼며 하느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이끌고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1990년 2월에 입회를 했고 본당 사도직을 시작으로 무료 노인 요양원, 씨튼 가족, 까리따스 간호협조 그리고 사랑심기 등의 사도직을 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오시는 좋으신 하느님을 체험했습니다. 공동체의 선배·후배 수녀님들과 생활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제 수도생활의 삼분의 일 가량을 지낸 미국 그린스버그에서의 생활은 참으로 소중하고 은총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일상



생활을 통해 수도자로서의 삶을 몸소 보여 주신 까리따스의 수녀님들께서는 마더 씨튼처럼 어머니의 사랑으로 저를 아껴 주셨습니다. 또한 모원 묘지에 잠들어 계신 수녀님들께서도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희망과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공동체의 배려로 올 한 해를 휴양하며 지내고 있는 저는 여유로운 일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쉬며 건강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염려 해 주시는 모든 수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도 매일 아침 우리 수녀님들께서 일상의 삶을 통해 좋으신 주님을 만나고 항상 기쁘고 건강하게 생활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모두가 하느님께 받은 수도 성소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의 성소를 키워주면서 성소의 완성을 이루도록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Hello, Sisters! I'm Sister Lee Son Ae, Josephine. I was born in Damyang, Jeollanado Province, a beautiful place with a well-known bamboo tree. My parents, farmers, gave life to two girls and one boy. I am the youngest, and I spent a happy and memorable childhood with my siblings, especially with my grandma.

When I entered Salesian Girls' High School, my first grade homeroom teacher was a Salesian Sister. There were many programs for students, such as small group gatherings, retreats and service activities, so we could visit Sorok Island, where leprosy patients live together, to volunteer. At that time, seeing the Sister who lives with the lepers on the island, I thought of being a religious woman for the first time. After graduating, I thought again of becoming a religious while volunteering at the Mission for the Blind. By doing that, I came to know our community. I also got to know the Caritas Sisters and went to a vocation retreat through the invitation of the Sister who led a Bible Study for young people and Salesian Sisters. However, when I visited our community for the first time, I was sure that God led me here because I felt comfortable, at home, and our sisters' hospitality and warmth touched my heart.

Entering in February 1990, through ministering in parishes, a free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Seton Family, nursing aid at Caritas Christi, and Planting Love, I could experience God coming to us in various images. Those opportunities enable me to share and learn the joy and sorrow of life with seniors and the newer members of our community. Especially the time, one-third of my religious life, in the USA with American Sisters in Greensburg was an extraordinary and grace filled moment for me. US Sisters showed



the model of religious sisters in daily life and cherished me with the love of a mother - like Mother Seton. The sisters who are sleeping in our cemetery were a great strength and enabled me to live with hope and gratitude while looking to the sky in whatever situation.

This year I am recuperating and making efforts to refresh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with more free time owing to the community's consideration of me. Thank you for your prayers for my recovery. I appreciate

your concern about my health. Every morning I pray that you all live a healthy life and spend a joyful day through encountering Jesus in your daily lives with people you interact with.



Lord of love, may we all cherish the religious vocations we received from God, and walk together to achieve the perfection of each other's call, nurturing one another's vocation. Amen.

